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명예 평화학 박사 수여

우리대학은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故 바츨라프 하벨(V clav Havel, 1936~2011) 전 체코 대통령에게 명예 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바츨라프 하벨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그의 업적을 높이 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관련기사 8면)

“밖에 나가 일하는 여자, 이기적인 여자?”

서울캠 후마 교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지속…학생들 “집에서 애나 보라’소리 들으러 학교 온것 아냐”

교수의 부적절 발언논란

권윤지 기자 happtice2@khu.ac.kr
김규래 기자 rlarbo41@khu.ac.kr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한 배분이수교과 강의에서 A교수가 봉건적 성역할에 기반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 과문이 일고 있다.

A교수는 140여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여자들은 집에서 애를 보지 않고 금테 안경 끼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이며, 그 순간부터 그 애들 인생은 망한 거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남성성’이지 여성이 할 일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제보를 통

해 전해졌다. <관련기사> 서울캠 후마 A교수, 강의 중 부적절 발언 / 대학주보 온라인 참고>

A 교수의 강의를 수강 중인 B학생은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학생’이고, 그 꿈들을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A 교수는 단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노력과 꿈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일’이라 펼쳐

하고 짓밟았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곳에 입학한 것이지, 꿈을 무시당하고 ‘너는 집에서 애나 보라’는 소리를 듣자고 경희대에 온 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역시 해당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C학생은 “첫 수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수업시간(지난 9월 21일)에도 ‘외동딸, 외동아들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등 계속 문제가 되

는 발언을 했다”면서 “학내에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많은데, 해당되는 학생들은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반발심이 들겠는가”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이 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우리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 등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배우는 학문이고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A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후에도 해당 강의 시간에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의 추가 제보는 계속 이어졌다. 앞서 제보한 B학생은

일주일 후 추가 제보를 통해 “A교수가 강의시간에 ‘애들이 숙제를 안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 못 대들게 만들어야 한다’, ‘자녀의 기를 꺾는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것’, ‘아이는 미리 두들겨 패고, 밟아놔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오며, “(이런) 교수님이 우리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후마 배분이수교과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그 동안 우리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가에서 수차례나 벌어져왔던 유사 사례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유사 사례들 모두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찰’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관련기사 4-5면으로 이어짐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 공동체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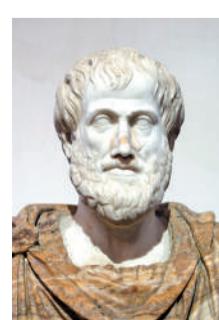
우기동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대학의 시민교육은 왜 사회적 주체로서 시민의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왜 ‘공동체’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가? 사회적 관계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삶의 관계’이며, 사회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생활의 세계’이다.

나와 사회의 관계는 철학자 헤겔의 말마따나 곧 ‘나인 우리, 우리

인 나’라는 공동체적 의식의 토대요, 공동체적 삶의 기초다.

그렇기에 나와 사회는 통일적으로 연관·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이다.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통에 의한 자유로운 인간들의 합리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로 표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적 동물(소통)이고, 또 언어를 매개로 이해관계와 갈등을 풀어가는 정치적 동물(공감)이며, 이러한 소통과 정치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공존)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삶의 관계

나 생활의 영역과 연관해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명공동체(민족), 인류공동체,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일자리),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상대적 단위인 공동체는 우리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생활공간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o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p 페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u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g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국제대학 박한규 학장

창의적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

